

### 여수시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 ‘호응’

당뇨 환자 대상 당화혈색소 검사 2~3개월 동안 혈당 수치 모니터링  
말뚝 서비스·암환자 재활운동 지속 추진...320여 개 물품 제공도

여수시는 재가암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당화혈색소검사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 내의 혈색소가 어느 정도 당화되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혈당의 평균

치를 모니터링해 얼마나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서비스’의 일환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당화혈색소검사를 통

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말뚝 서비스, 혈압·당뇨 관리, 관절 관리, 암환자 재활운동 등도 지속 추진해, 만성질환 5,030가구에 기초 검사(고혈압, 당뇨), 재활서비스, 파스, 영양제, 기저귀 등을 지원하고, 재가암환자에게는 보충식이 등 320여 개의 물품을 제공했다. 또한 여수시는 거동불편자와 경로당 이용자 등에게 폭염, 미세먼지 대

비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의료취약층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061-659-4303)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곡성군, 오지 3구 마을 치매안심마을 2호로 지정

현판식 개최...치매예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곡성군이 오곡면 오지 3구 마을을 치매안심마을 2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5일 오지 3구 마을에서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설명회와 현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곡면장,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마을 운영위원회 및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지역 주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

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해 치매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이다. 곡성군은 지난해 석곡면 덕동리를 치매안심마을 1호로 지정한 바 있다. 치매안심마을의 핵심 사업은 마을 회관을 마을 거점 치매쉼터로 활용해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검진 및 치매예방교육, 대상자별 인지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 가정에 치매안심관리사를 주 2회 파견해 인지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이 불편한 치매환자들을 위해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조성한다. 곡성=김광휘 기자

### 장흥군, 미용협회와 손잡고 아동 미용서비스

장흥군 미용협회 30% 재능기부 후원 나서...9월까지 196명 대상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196명을 위한 미용서비스를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로 또래관계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어려서부터 청결한 위생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흥군 미용협회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30% 후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돕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 사회에 재능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요



자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다문화가정에 후원금 전달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골프동호회

영암군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골프동호회(전총회, 회장 이만선)에서 다문화가정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광주 전남 CEO 모임인 전총회는 지난 4일 영암 아크로컨트리클럽에서 다문화가정 10세대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올해로 9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총회 다문화가정 후원금 행사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하여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환으로 친선 골프대회 후 다문화가정 10세대에게 각 3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장성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덜어

장성군이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양육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기저귀 지원대상을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

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이나 각종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에게 지원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